



## 직업스트레스, 심장병 악화와 무관

심장병과 高스트레스 직업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름과 성냥’ 같은 위험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일까. 그러나 일반적 통념과 달리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을 가진 심장병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심장발작을 일으키거나 사망할 확률이 더 높지는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英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美노스캐롤라이나州 듀크大 연구팀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한 환자 1천4백89명을 대상으로 관상혈관조영술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힌 환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조영술은 관상동맥 내부를 관찰,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는 지방침전물을 검사하는 것이며 설문조사는 업무가 주는 심리적 부담감과 업무일정 및 방법의 조절가능성을 근거로 한 스트레스 표준척도를 이용해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놓고 美언론은 직무스트레스가 심장병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비판자들은 연구대상이 가슴의 통증을 호소

한 사람들만으로 국한됐기 때문에 그 같은 결론을 내리기는 너무 성급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美뉴욕州 코넬 의과대 심장학자인 토머스 피커링씨는 “통증을 호소한 사람중 심장병의 징후가 없는 그룹은 정상아 아니다”라며 “이전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신경과민인 경향이 있으며 자신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고 말했다.

듀크大 연구팀은 또 관상동맥검사 후 평균 4년간 동맥이 막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추적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이 기간에 자신의 직무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진술한 환자들이 스트레스가 덜한 직업을 가진 환자들보다 심장발작을 더 많이 일으키지는 않았다는 것. 또한 두 집단간에 심장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의 일원인 레드퍼드 윌리엄스씨는 “이 연구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직무스트레스가 심장병의 악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스트레스요인중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는 고대근무, 해고위험, 동료와의 갈등 등이 설문서에서 다뤄지지 않은 점 등 때문에 스트레스와 심장병이 무관하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고 있다.

연구팀은 “우리가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은 직무스트레스와 심장병과의 관계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심장질환에 걸린 환자가 더 이상의 심장발작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직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이보다 앞서 윌리엄스씨는 사회적 격리가 심장병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높이며 따라서 직업을 계속 갖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는 “일정한 직업을 갖는 것이 직무스트레스의 악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인 환자, 암진단 직접 통보 싫어해

미국에서는 한국과 멕시코인 환자가 유럽계와 흑인환자들에 비해 의사로부터 암진단을 직접 통보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 태평양 보건정책윤리연구소의 레슬리 블랙홀 박사는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한 연

구보고서에서 65세이상의 한국-멕시코-유럽계 주민과 흑인 8백명을 대상으로 암진단을 의사로부터 직접 통보받고 싶은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블랙홀 박사는 이 조사결과 의사로부터의 직접통보를 원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한국인 47%, 멕시코인 65%, 흑인 80%, 백인 87%로 한국인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블랙홀 박사는 또 이들에게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조치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것인지 가족에게 맡길 것인지를 묻은 결과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대답한 경우는 한국인 28%, 멕시코인 41%, 흑인 60%, 백인 65%로 역시 한국인이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블랙홀 박사는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따라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진단결과에 관한 정보를 직접 받고 이와 관련한 결정을 직접 내릴 것인지 아니면 가족에게 맡길 것인지를 사전에 물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존스 홉킨스대학의 로렌스 코스틴 박사는 의사들은 인종이 다른 환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여 치료에 나서는 것이 환자와 의사간의 의료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㉞